

맞춤형 청년 정책지원 최선 농업ON 고도화 본격 추진

무주군, 내달 4일까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 사업장·청년 모집

무주군이 올해 청년들에 대한 정주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비 9억 원(국비 3억7천만 원 포함)을 투입해 청년 일자리사업 지원 정책을 펼친다. 무주군에 따르면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사업장 및 청년(무주군 49세까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기존사업 1개 분야와 신규사업 3개 분야에 지난해 보다 23명이 증가된 42명에게 취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난 1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모집에 들어갔다. 올해 신규 사업은 지역혁신형(인건비 지원), 상생기반대응형(창업 지원), 지역포용형(인건비 지원)분야다.

지역혁신형에는 2개 사업이 있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지역특화 사업장에 스마트 스토어 및 온라인스토어 플랫폼 분야 전담인력(인건비 월 200만원, 복리후생비 월 40만원, 자기개발비 및 교육비 지원) 7명을 선발하는 사업과 청년대표인 스마트팜 사업장에서 스마트팜 사업장 운영 및 기술 습득을 위한 전문인력(인건비 월 200만원, 복리후생비 월 40만원, 자기개발비 및 교육비 지원) 7명을 선발한다.

상생기반대응형에는 2개의 창업 지원 사업이 있으며, 청년 예비 창업자(임차료, 공공요금, 재료비, 자기개발비 및 교육비 지원) 5명을 선발해 청년 창업공간 및 창업 기회를 지원하는 사업과, 청년 1명 이상을 고용 중인 지역 내 창업 7년 이내의 청년 창업자(임차료, 공공요금, 재료비, 자기개발비 및 교육비 지원)에게 창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대상자 5명을 선발, 지원할 계획이다.



무주군은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사업장 및 청년을 모집한다.

마지막으로 지역포용형 사업은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문화·예술·복지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통해 지역사회 필요인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 맞춤형 인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청년 8명을 선발한다. 신청자격은 무주군에 거주하는 만18세에서 49세까지의 청년(예비 창업자)이며, 관의 주소를 둔 경우 사업대상자로 선발된 이후 1개월 이내 무주군으로 전입을 완료하면 된다.

모집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주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산업경제과 일자리팀(063-320-2382)로 하면 된다.

5년차에 접어 든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은 인구소멸위험지역인 무주의 미래 동력이 될 청년 세대의 무주군 정

착을 돕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경제과 박각준 과장은 "청년이 관심을 갖는 일에 대한 경험과 직무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 제공의 역할을 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청년이 대표인 사업장과 청년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접수 기간 내에 접수해 무주의 성장 동력을 지원하는데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했다.

군은 2021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창업에 성공한 '장동은' 청년이 운영하는 '오늘 내일은'(도토리) 사업장과 '김다정' 청년이 운영하는 '데이제이제(떡 케이크 공방)'을 방문하고 무주 지역 여건에 적합한 청년창업 등 맞춤형 청년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농민·귀농귀촌인 대상 주민설명회 개최

진안군은 관내 농민·귀농귀촌인 단체, IT업체와 함께 전국 농민이 사용하는 농업ON 고도화를 본격 추진한다. 군은 지난 21일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주)인조이웍스, 진안군 농업인단체협의회, 진안군 귀농귀촌협의회, 관내 농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ON 고도화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 사업수행자인 (주)인조이웍스는 농업ON 서비스에 대한 소개와 고도화 사업 추진 방향 및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고 실사용자인 농업인들에게 서비스 개선안 및 추가 희망 서비스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으며,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농업ON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업ON 고도화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기존에 제공 중인 서비스에서 모바일 기능을 확대하고, 영농일지 작성 간소화 및 개인별·작물별 맞춤형 정보 제공 등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특히 6개 작목(토마토, 딸기, 마늘, 고추, 사과, 벼)에 대한 농업 관련 정보를 대폭 확충하여 서비스할 계획이다.

진안군은 농업ON 고도화 추진을 위해 지난해 12월 사업수행자인 (주)인조이웍스, 관내 농민·귀농인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날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전준성 군수는 "농업ON 고도화는 우리나라 농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해 농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이러한 농업ON 고도화를 우리 진안에서 추진하는 만큼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ON 고도화는 오는 5월까지 진안 농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업그레이드 된 기능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기능보강 등을 완료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황인홍 무주군수, 전북태권도협회 이병하 회장에 감사패

황인홍 무주군수가 지난 22일 국제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지지 활동에 앞장서 온 전라북도태권도협회 이병하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전주비전대학교 비전로 4층 강당에서 열린 전라북도 태권도협회가 주최·주관한 2021년 전라북도태권도 유공자 시상식에 참여한 자리에서다.

황인홍 군수는 "사관학교가 태권도의 세계화 촉진, 국익 창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위대한 동력이 될 것이다"며 "대한태권도협회와 전북태권도 협회가 사관학교 설립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마음이 돼 적극 활동하고 있어 매우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한태권도협회와 전북태권도협회가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대한태권도협회는 태권도는 211개국 1억 5천만 명이 우릴말 인사, 구령과 함께 수련을 하는 한류의 원조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제 사관학교 설립이 태권도와 종주국의 위상을 높이는 동력임을 전제, 반드시 제20대 대선 공약에 반영이 돼 국책사업으로 추진이 돼야 한다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대한태권도협회가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건의문은 전라북도 태권도협회에 건의해 성사됐다.

이날 유공자 시상식에는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추진과 태권도 발전에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무주군민과 골짜기 7명에도 감사패 및 표창장을 받아 주목을 받았다. /무주=전문선 기자

힐링 여행지 '장수 치유의 숲' 개관

2월까지 무료 시범 운영... 다양한 산림치유 프로그램 추진

장수군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생활을 위해 '장수 치유의 숲'을 조성하고 지난 21일 치유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장영수 군수, 도의원, 군의원을 비롯한 기관단체장 및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 경과 보고, 기념사 및 축사, 현판제막식, 시설 관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장수 치유의 숲은 장수군의 명산인 팔공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군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 천천면 와룡자연휴양림 인근에 무장애데크로드(0.4km), 테마숲 3개소, 치유숲길(4.95km) 등을 50ha 규모로 조성했다. 이번 제막식 개관한 치유센터에는 향기치유실, 건강치유실, 명상치유실 등을 갖췄다.

군은 개관과 동시에 올 2월까지 무료로 시범 운영할 예정이며, 건강백세 장수백세, 장수찾아 삼바리, 이바여

기가 장수래! 등 다양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마련해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주변 의료기관과 연계해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장영수 군수는 "장안산, 팔공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장수군에 치유의 숲이 개관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치유의 숲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춘 휴양과 치유를 겸하는 고품질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군은 지역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노후하수관로 개량사업 추진 박차

무주군이 수질보전과 지반 침하 예방 등을 위한 노후하수관로 개량사업을 본격화하면서 금강산유역지역에 대한 수질이 더욱 양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주군에 따르면 하천오염을 방지하고 하수처리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노후하수관로 개량사업 1·2 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올해 사업비 10억 원(국비 5억 원 포함)을 확보하고 무주군 구천동과 설천면 일원에 노후하수관로 개량사

업 2단계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군은 이를 위해 다음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는 등 본격 사업에 착수하기로 했으며, 내년 3월 공사 발주에 들어가 오는 2024년 10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총 82억 원을 들여 오수관로를 교체하고 관로를 보수함으로써 구천동과 설천면 일원 주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안정적인 하수처리 기대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복합노인복지타운 노인 주야간보호센터 개원

진안군복합노인복지타운 노인 주야간보호센터(관장 장상원, 이하 주야간보호센터) 개원식이 지난 21일 전준성 군수를 비롯한 군의원, 시설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군은 차매국가책임제 공모사업에 응모해 국도비 3억2,200만 원을 확보하고 군비 6700만원 포함 총사업비 3억8900만 원을 들여 진안복합노인복지센터 3층에 연면적 363㎡(일반실 1, 생활실 2, 프로그램실 1) 규모로 시설을 마련했다.

주야간보호센터는 차매노인 8명을 포함한 총 29명의 어르신을 보호하게 된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장기요양등급 수급자(장기요양 2~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가 이용할 수 있다. 센터는 신체 재활, 인지, 정서, 취미,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운영은 사회복지법인 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대표 오성기)가 맡는다. 안정적인 시설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진안군노인복지관장이 시설장을 겸한다. 입소문의는 진안군복합노인복지타운 노인주야간보호센터(063-433-7798)로 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본격 가동

진안군은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군은 지난 21일 군청 상황실에서 추진위원장 김창열 부군수 주재로 추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사업경과보고 및 기본계획을 확인하고 2022년도 사업계획(안)을 심의했다.

그동안 진안군민의 독창적인 요소를 융합해 지역 특색화를 통한 성공적인 사업모델을 구상해 온 군은 올해 총사업비 70억 원(국비 49억 원, 지방비 21억 원) 중 2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진행한다.

먼저 올해부터 군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시작하고, 진안 웰스푸드 아카데미를 개소할 계획이다. 기본교육을 포함한 여러 교육과정을 통해 경제공동체 조성을 발굴하고 육성하게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